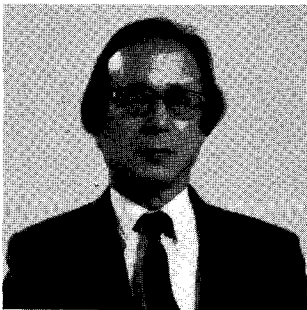


- 4월 14일자 조선일보 아침논단  
「아카시아論」을 읽고

## 「아카시아」를 다시 생각한다



任慶彬

원광대학교 임학과 교수

오로지 수종을 개량하고 좋은 숲 만드  
는 학문을 하면서 40년을 훨씬 넘은  
세월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지만은 알  
고있는 것은 많지 않고 부끄러운 재능을 새  
삼 느껴보기도 하며 되돌아볼 이야기거리  
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30대, 40대 시대  
에는 아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았고 따라서  
왕성한 지식의 생리에 흐뭇해 한 것도 사  
실이나 지금에 와서는 아는 것이 별반 없어  
지고 말았다는 느낌에서 허전한 틈새도 많  
다.

그간 경험한 것 중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  
가 나무와 숲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고 일  
가견을 가진 분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이웃집 닭이 알을 적게 낳아도 관심이 거  
의 없고 친구가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보  
라고 권하지만은 뜰에 몇그루의 나무를 심  
어 오랫동안 사귀어온 터이고 보면 나무 만  
큼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리를 가  
지고 있다. 사실 봄철이 되어 길거리의 누  
군가를 붙잡아 나무 심는요령을 물어 불라  
치면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해준다.

이러한 이유는 숲이란 것과 나무란 것이  
어느 사람의 개인소유에 속할지라도 그것  
이 외부로 발산시키는 가치가 국가적, 민족  
적 또는 사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고 현시에 와서는 그것도 모자라 세계  
적인 규모로 따지고 있고 다른나라의 소유  
자원에까지 간섭을 하게 된 경지에 이르고  
있다.

농경지에는 국유가 거의 없지만 숲에 있  
어서는 국유림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



경북 금릉의 독립가 이원달(중앙일보 심의실장)씨의 아카시아 인공조림지, 1988. 겨울 촬영

도 앞으로 국유림의 면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학문분야는 그 만큼 더 큰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모 국회의원 한분을 만난 일이 있다. 그분은 우리나라 숲과 나무에 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강력한 어조로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는 모조리 쓸모없는 잡목뿐이요. 무엇하나 쓸만한 것이 없고 모조리 싹 베어 내서 좋은 나무 심을 때가 왔고 이것을 방관하는 것은 비애국적 태도요. 캘리포니아에 가보았더니 하늘을 찌르는 곧은 줄기의 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왜 그 나무의 종자로 우리의 산을 덮지 못한단 말이요. 당장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요.”라고 했다. 그분의 숲 사랑, 나무사랑은 대단했다. 고마울 뿐이었으나 캘리포니아의 나무를 우리나라 산에 온통 심을 용기는 아직 없다.

여름 어느날이었다. 30대를 좀 지난 듯

한 건장한 청년이 긴장된 인상으로 나의 연구실을 찾아 왔다. 말의 내용이 대충 다음과 같았다. “교수님 제가 큰일을 하나 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언고 하니 우리나라 산에 나있는 나무들은 모조리 쓸모없는 것이요. 그러나 단 하나 심을 나무가 있요. 그것은 바로 아카시아요. 제주도에서 휴전선까지 모든나무를 끊어내고 아카시아를 심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잎은 영양가 높은 가축의 먹이가 되고 가지는 열량 높은 펄감이 되고 뿌리에는 질소를 고정하는 박테리아가 있어서 숲 땅을 비옥하게 하고 토사유출을 막아 국토가 잘 보전될 것이요. 이것만이 아니요” 하더니 갑자기 옷을 벗어 내복 바람으로 되면서 “자아 이 내복을 먼저 보시오. 이것은 아카시아 내피로 방직된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옷감 걱정은 거의 할 필요가 없어졌요. 당신은 교수자리에 있으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요.” 나는 그 청년의 내

“흔히들 아카시아는 움푹이 잘 돌아 산을 망치고 특히 산소를 버린다고 한다. 그것은 옛날에 땀나무를 위하여 줄기를 잘라 주었기 때문이다.”

의를 만져 보았다. 울이 굵고 가슬가슬 했지만 그는 촉감이 무척 좋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아카시아 내피가 의류의 섬유자원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아카시아가 미국 원산수종이란 것은 잘 알려지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대를 기록에 의한 고증을 해보면 1890년 인천에서 郵船회사의 지점장으로 있었던 「사카기」란 자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묘목을 가져와 인천공원에 심었다는 것이 효시로 알려져 있고 그 뒤 7년이 지난 해에 역시 인천 월미도에 심어졌던 이 숲은 오래 계속 자란 것으로 기록을 남겨 놓고 있다. 그 뒤 아카시아의 좋은 점이 인식되면서 미국과 중국으로 부터 종자를 수입해서 조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아직 이 나무에 대한 생태적 특성을 잘 알 수가 없어 조림성고가 무산되었던 곳이 많았다고 한다. 1910년 부터 1918년 사이 약 200만 그루가 넘는 아카시아가 조림되었고 1926년부터 1940년 사이 15년간에 걸쳐 생산된 아카시아 묘목의 수량은 약 9천 4백만 그루에 이르고 있다. 그 중 1940년에 만도 약 5천만 그루의 묘목이 생산된 바 있다. 당시 15년간 8대 조림수종이라 하면 소나무, 해송, 낙엽송, 잣나무, 밤나무, 상수리

나무, 오리나무류 그리고 아카시아였고 리기다소나무와 포플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리기다소나무를 무척 많이 심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이유는 이 나무는 심은 곳마다 잘 살아 불고 뻗뻗한 숲을 쉽게 형성해 주었다는데 이유의 하나를 찾아 볼 수 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산은 무척 황폐해 있었고 국가적인 수치로 항상 등장되고 있었다. 그 때부터 슬슬 녹화의 긴요성이 인식되어 국민이 모두 께기하는 조림운동이 전개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때만 해도 조금만 큰 비가 내려도 제방이 터져 농경지를 물어버리고 집들이 붕괴 되었다. 그때 필자가 경주 냉천리라는 동리를 찾은 일이 있는데 산이 황폐되어 작은 도랑이 넓은 모래밭으로 변했고 농토를 잃어 주민들은 고향을 떠났다. 그 뒤 뒷산에 아카시아를 심어 녹화가 되자 농토를 다시 찾게 되었고 다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벼논에 뿌리라고 배급된 질소비료를 논에다가 뿌리지 않고 뒷산 아카시아 임지에 뿌려주고 있었다. 그 임지에서 짐승들의 배설물도 발견되었다. 아카시아는 그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40대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 중 그때의 아카시아 나무로 지은 밥맛과 따뜻한 온돌 잠자리를 잇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아카시아를 소중한 목재자원, 밀원자원 또는 환경자원으로 인식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진행중에 있다. 그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아카시아는 비교적 공해에도 강하고 야생동물의 좋은 서식처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되도록 각종의 야생동물이 우글거리는 것이 좋다. 아카시아의 잎은 땅힘을 돌구는 명약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아 꿀을 1991년의 통계만 보더라도 5천 6백톤으로 약 445억 원이란 가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를 많이 심어 그 꿀값으로 목재를 외국에서 사다 쓰는 정책이 바람직스럽다고 했으나 나는 아직 이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다.

아카시아에서 나오는 목재는 무겁고 단단하고 잘 썩지 않으며 무늬와 색깔이 아름답다. 옛날에는 우마차나 철도 침목을 이 나무로 많이 만들었다. 지금은 새로운 용도가 개발되어 가구재, 목공예재, 건축재(마루판, 계단재), 화물자동차의 마루판 등의 고급 목재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카시아 마루판, 계단재 전문생산공장이 3개나 있다. 목재값도 소나무값의 2배나 된다. 그러나 원료 목재가 부족하여 공장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 어떤 전문가는 아카시아 목재가 제대로 공급되면 연간 3,300만불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흔히들 아카시아는 움푹이 잘 돌아 산을 망치고 특히 산소를 버린다고 한다. 그것은 옛날에 땀나무를 하기 위하여 줄기를 잘라 주었기 때문이다. 아카시아는 줄기나 뿌리에 흠을 내거나 잘라주지 않으면 움푹이 거의 나오지 아니한다.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를 크게 잘 키우면 움푹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질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아카시아는 뿌리에서 독소를 뽑고 토양을 산성화시켜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도 한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른 나무 주위에 아카시아를 심거나 또는 아카시아 주위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 다른 나무도 잘 자라고 아카시아도 잘 자란다고 한다.

반성할 일도 많다. 사람도 쓸만하게 잘 키우자면 대학교육 정도는 시켜야겠는데 나무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은 마치도록 해야 한다. 아카시아로 말하면 필자의 의견으로서는 국민학교 중간쯤 다니다가 휴교를 했다가 다시 복교한 정도가 아닐까? 우리나라의 수종치고 대학졸업한 것이 없고, 고등학교 교육도 그렇고, 잘한 것이 중학교에 입학한 단계라고나 할까. 나무는 모두 국비 장학생인데 등록금이 없고 돈도 떨어져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형편에 있다. 대학교육만 받았다면 아카시아는 곧은 줄기가 하늘로 솟을 것이고 우리가 싫어하는 움푹은 보기 힘들게 될 것이고 아카시아 목재로 만든 가구를 찾을 것이며 그 꿀로 피부도 가꾸어 질 것이다. 이제 나무와 숲의 중요성은 국민적 인식 위에 올라선 감이 있으니 더 많은 국가예산도 투입될 것으로 안다.

우리 임업인들도 이제 지식과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에 차 있다. 길가집 3년 가도 못다 짓는다는 격언이 있지만 이제 임업인들은 길가집도 자체만 공급되면 예정대로 지을 수 있게 된 처지에 놓여있다. 비온 뒤에 땅 굳는다고 임업인들이 새삼 아카시아의 정체를 살피게 되고 소위 공감대가 더 굳어진 것으로 알아 좋고 이런 비는 이 뒤라도 드문드문 내리기를 바라고 감사할 뿐이다.